



2016년 지부 중심으로 투쟁하자!

정부 노동개혁이 임단협 영향 미칠 것

지부 임단투 설문조사 결과, 많은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가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걱정했다. 사측이 올해 임단협에서 이것을 빌미로 단협 개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. 이를 막기 위한 임단투 요구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였다.

임단협과 대정부 투쟁 함께 간다!

설문조사에 응한 조합원 중 82.5%는 올해 사측의 임단협 개약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봤다. 그 중에서도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2가지 이상 동시에 개약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32.6%로 가장 많았다.

지부, 지회의 대응책으로는 대정부 투쟁(28.9%), 조합원 의식강화(24.8%), 현재 단협 사수 투쟁(22.3%)이 고르게 제시됐다. 정권 차원의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대정부 투쟁과 사

업장 임단협 사수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.

이런 결과를 반영하듯, 지부와 지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구안으로는 '고용안정', '임금저하 금지'를 꼽는 조합원들이 많았다. 올해 임단투는 고용과 임금을 두고 자본과 치열한 투쟁이 예상된다.

지부 중심으로 투쟁하자!

조합원들은 임단투에 대한 개선점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가 부족(52.6%)을 꼽았다. 그러면서 지부, 지회의 지도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교육, 선전 등 의식강화 사업(46.9%)과 임원의 주기적 현장순회 및 간담회(34.9%)를 주문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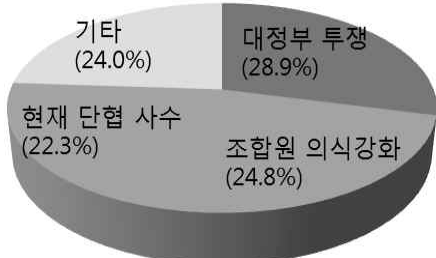
지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 임원과 교섭단의 현장순회와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. 공동의 교육과 선전을 통해 각 사업장의 각개약진이 아니라 지부 전체의 공동투쟁을 만들 계획이다. 자본은 정권 차원으로 공격해오고 있는데 사업장 안에 갇혀서 대응할 수는 없다. 지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하자!

2016년 임단투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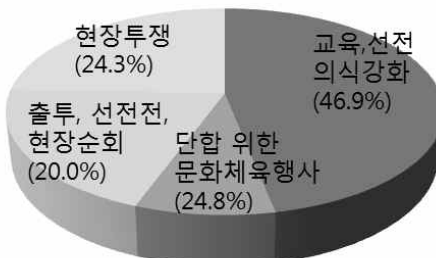
임단협 개약 시도



개약 대응책



지도집행력 강화



● 지부 요구안 우선순위

1)고용안정 2)임금 저하 금지 3)취업규칙 불이익변경 4)노동자 건강권 5)노동시간 유연화 저지

● 지회 요구안 우선순위

1)고용안정 2)임금 및 복지 향상 3)조합활동 확대 4)장시간노동 해결 5)노동자 건강권

금속노조 41차 임시대의원대회

일시 : 2016.03.03(목) 14시
장소 :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

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

일시 : 2016.03.04(금) 15시
장소 : 대전본부 대강당